



최근 3년 동안 중앙도서관의 대출 권수는 약 4만 권 이상 증가했으며 '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사진=하시언 기자)

‘텍스트 힙’, 대출증가세 뚜렷 ‘한강’효과로 문학서적 비중 높아져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대학가에 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텍스트힙’이라는 신조어도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힙’은 ‘텍스트’(문자, 글)와 ‘힙’(유행에 밝다)을 결합한 단어로, Z세대가 독서 자체를 멋진 문화로 인식하게 된 현상을 설명한다. 우리학교 또한 텍스트힙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3년 사이 대출 4만 권 증가 독서량 급증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앙도서관의 대출자 수와 대출도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출자 수는 2022년 11,627명, 2023년 14,353명, 2024년 16,525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대출 권수 역시 2022년에는 약 20만 권에서 2024년은 약 24만 권으로,

약 4만 권 이상 증가했다. 재학생 1인당 대출권 수는 2022년 2.6권, 2023년 3권, 2024년 3.7권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재학생 1인당 중앙도서관 방문자 수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2년 19.5번, 2022년 35.7번, 2024년 49.9번으로, 2022년 대비 약 30회 증가했다.

김양진(국어국문학) 교수는 20대 독서 열풍의 원인으로 차별성, 모방, 결핍을 꼽았다. 김 교수는 “또래 집단이 SNS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 창구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구별되기 위해 아날로그 감성의 영역으로 자신을 위치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지적 자산을 가진 엔터테이너들이 청년들의 롤모델로 부상하면서 모방 심리가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적 결핍이 주요 동기로 “비대면 대학시절을 보낸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 전반의 시간을 보냈다는 지적 결핍 의식이 내/외

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학 열풍’ 도서관 인기도서 순위 변동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문학류 대출통계는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4,759건, 2023년 15,721건, 2024년 17,778건으로, 2년간 약 3천

여 건 증가했다.

중앙도서관 인기도서 상위 50위에도 문학 열풍이 반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9월 30권, 10월 32권, 11월 35권, 12월 39권으로, 노벨상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문학 서적의 비중이 늘었다. 특히 한강 작가 도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도서관은 〈소년이 온다〉 도서를 11권 보유 중이지만 전부 대출 중이며 모두 예약이 차 있는 상태다.

안승범(국어국문학) 교수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소설을 포함한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졌다”며 “독서 문화 자체에 대한 재고

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예전에는 문과대 학생들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다면, 노벨상 이후에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최승우(물리학 2020) 씨는 “〈소년이 온다〉를 읽고 문학만이 가진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였던 독서량이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영서(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씨는 “학년을 거듭할수록 혼자 있을 시간 시간이 많다”며 “에세이를 읽으면 생각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 예전보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1인당 전자책 장서량 ‘최하위’

텍스트힙 열풍 속, 사회적으로 ‘모바일 독서 인구’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밀리의서재’와 같은 독서 플랫폼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835만 명을 넘어 2년간 약 30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다만 전자책 열풍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1인당 전자책 장서량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앙도서관은 현재 국내, 국외 도서를 합해 147,811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다. 장서량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전자책 장서량은 4.5권으로, 1위인 서울대의 39.3권과 비교하면 약 8배 이상 차이 난다.

참고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1인당 전자책 장서량은 ▲서울대 39.3권 ▲고려대 16.6권 ▲중앙대 14.1권 ▲연세대 13.7권 ▲서강대 9.6권 ▲성균관대 8.7권 ▲한양대 8.6권 ▲서울시립대 6.68권 ▲한국외대 5.1권 ▲경희대 4.5권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유현경 계장은 “전자책 이용 증가 현상에 따라 대출 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국내 전자책 대출 기간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1인당 전자책 장서량으로 약 14권을 기록한 중앙대는 희망 도서, 전공 도서, 교양 도서의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 구입을 진행한다. 중앙대 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이용자 희망 도서를 최우선 구입한다”며 “교양대학과 협업을 통해 교양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 선정을 부탁해 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대출률이 늘어 예산도 같이 늘었다”며 “차이는 있지만 한 해에 6천 권 정도 구입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1인당 전자책 장서량

